

# 地域開發論과 地域地理學\*

김 덕 현\*\*

##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Geography\*

Duk-Hyun Kim\*\*

**요약** : 지역과 지역지리학이 재흥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대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공간적 재현 양식의 하나로서 지역의 의미도 변화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자본주의 체제는 자신에게 적합한 재현 양식을 요구하며 지역도 그 하나이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발전한 포드주의 자본주의 하에서, 지역 발전은 서구적 사회경제 체제의 공간적 확산과정으로 인식되었다. 국가는 조절기구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하부구조를 제공하고 지역적 공간 분업 구조를 조직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원하였다. 지역개발론은 이러한 국가개입에 적절한 이념과 정책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으며, 지역은 발전의 공간적 확산 과정을 측정하고 인식하기 위한 지리적 정보를 조직하고 분류하는 수단이었다. 지역개발론은 전통적인 지역 개념을 형식적 분류 개념으로 왜소화시켰다.

포디즘에서 유연적 축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이행하면서, 지역이 다시 그 정체성과 진정성을 획득하고 있다. 지역지리학은 이러한 지역 재흥의 추세 속에서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유효한 방법의 하나가 문화생태학적 지역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라고 믿는다. 문화생태학적 지역이 유연적 축적체제 하에서의 지방정부의 문화전략에 부합하고, 지역성을 서사적 내용과 미학적 경관으로 담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어** : 지역, 지역지리학, 재현 양식, 지역발전, 확산, 국가, 유연적 축적, 문화생태학적 지역

**Abstract** : Recently it is supposed to be a shift to regional geography. To understand the emergence of the new regional geography, It must be remarked that the progress of capitalist production and consumption change our conceptual apparatus such as representation of space. Region is one of the important mode of representations of space and time. In the Fordist capitalism of 20th century, development is regarded as diffusion of capitalist expansion of western worlds. State must support capitalist growth through regional policies which include constructing of infrastructure and regionalization of spatial division of labour. The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 contributed as ideology and policy tools for state intervention. The region was simply one of the most logical classification tools of organizing geographical informations. In the theories of regional development, the concept of region was reduced to the formal unit of classification.

As the transition from Fordism to flexible accumulation, the region is again acquiring its 'identity' and 'authenticity'. In this tendency of the revival of region, it is expected that good achievement could be made in the field of regional geography through relevant research methods. It is also believed one of the available means are historical approaches to the cultural and ecological regions. The historical approaches to cultural and ecological regions are not only correspondent with 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s, but also could convey regional identities through both narrativization of place and aestheticization of landscape.

**Key Words** : region, regional geography, mode of representation, regional development, diffusion, state, flexible accumulation, cultural and ecological region.

### 1. 문제의식 설정

이 글은 '지역개발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리학의 고유한 연구 대상으로서 지역의 의미와 지역지리학의 연구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고찰은 20세기 서구지리학에서 지역의 의미와 지역개발론의 내용이 그 시대 자본주의 경제의 공간적 요구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관점에서, 지역개발론의 목표로서 발전, 현장 내지 대상으로서 지역, 그리고 발전의 주체자로

\* 이 글은 2002년 2월 21일 한국지역지리학회의 "지역지리학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되고, 다시 수정 보완하여 6월 14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원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되었다.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지리전공 교수(Professor of Geography, Faculty of Social Science, College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dukhyun@nongae.gsnw.ac.kr)

서 국가의 역할을 살펴본다. 자본주의체제의 팽창과 발전에 따라 발전·지역·국가에의 의미와 역할이 어떻게 지역개발론에 투영되었는가를 구명하는 것이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역지리학의 연구 방향과 내용에 의미 있는 시사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 발전’이란 말은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지리학이 사회과학적 ‘공간과학’으로서 존립 근거를 상징하기도 했다. 이 시대 지리학은 비록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지역’과 ‘발전’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자임하고자 했다. 발전은 시대의 이데올로기였고, 지역은 지리학의 고유한 연구 대상이며 지리학자가 전유하는 개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지역지리학의 쇠퇴기였다. 개성기술적 ‘지역지리학’에서 법적추구적 ‘공간지리학’으로 이행이 발전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길이라고 보고 한국에서도 전통적 지역지리학과 지역 개념에 대한 비판은 당연시되었다<sup>1)</sup>. 지역이 지리학의 고유한 연구 영역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 지역지리학의 지역은 그 종합적이고 구체적 개성 때문에 분석적 접근방법을 요구하는 시대적 조류에 의하여 ‘예외주의적’이고 그래서 ‘비과학적’인 것으로 비판받고 심지어 열등한 연구방법으로 조롱받았다. 전통적 지역지리학의 종합적 성격이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총체성, 이원성, 과학성의 문제는 20세기 후반 지리학이 공간과학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 약점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지역의 종합적 성격이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가져올 근거라는 주장이 살아남았다<sup>2)</sup>. 최근 ‘신지역지리학’이 하나의 경향을 형성하면서 다시 지역지리학의 재흥이 논의되고 있다<sup>3)</sup>.

이 고찰에서는 지역을 연구 주제와 방법으로 삼은 지역지리학이 20세기 후반 세계적으로 쇠퇴한 것과,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재흥하는 추세를 현대 자본주의가 공간적 차원에서 그 체제를 재현시키는 양식의 변모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하비(Harvey, D.)는 모든 특징적인 생산양식이나 사회구성체가 고유한 시-공간적 결합 방식과 실천 방식 그리고 개념을 표현하는 재현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화·시-공간적 재현양식의 변화·일상생활의 구

체적 질서 변화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한다.

“자본주의는 사회적 재생산의 물질적 실천 및 과정을 줄곧 변화시키는 혁명적 생산양식이었기 때문에(지금도 그렇다), 그에 따라 공간과 시간의 의미가 변화하는 것은 물론 객관적 성질도 바뀌어 진다. 다른 한편, 지식(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관료적, 합리적)의 진보가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발달에 필수적이라면, 개념적 수단(공간과 시간의 재현 양식들을 포함하여)의 변화는 일상생활의 질서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sup>4)</sup>

위의 하비의 언명은 자본주의 경제의 변화 발전이 재현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재현 양식의 하나로서 ‘지역’ 개념과 같은 학문적 개념 구성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 고찰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1960년대까지, 그리고 한국과 같은 선발 개도국에서는 1980년대까지 전개된 포드주의적 자본주의의 공간적 재현 체제를 ‘지역개발론’의 뿌리로 보고, 그 맥락에서 발전과 지역, 그리고 국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최근의 이른바 신지역지리의 의의는 현대자본주의 축적 양식의 변화가 새로운 공간적 재현 양식을 요구한다는 관점에서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 2. 발전주의 지역개발론

‘발전(development)’이란 말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라면, ‘개발’은 정책 수단이 개입되는 의도적 발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발전’이란 단어는 바람직한 변화, 상향적 변동을 의미하지만, 지역과 관련시킬 때, 그 실제적 내용은 소비나 생산과 같은 경제력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채워진다고 본다<sup>5)</sup>. 또 성장으로서 발전을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의도적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이 ‘개발’이라는 목적적 활동이 된다<sup>6)</sup>. 발전에 대한 사고는 19세기 서구 자본주의의 세계적 팽창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생물진화론에서 도출된 기술적 진보 사관과 맥락을 같이 하는 선형적 사회 발전관이다<sup>7)</sup>. 따라서 지역 발전이란 지역 개발을 의미하고, 지역 개발은 사실상 지역 ‘외

부'로부터 투입에 의하여 촉발되는 경제성장을 의미해 왔다. 여기서 '외부'란 선진국이거나 아니면 보다 상위의 공간 단위인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더 나아졌다"는 의미의 '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이다. 그러나 지역개발론에서 발전의 과정이 물질적 부를 더 많이 소유한 다른 지역이나 선진국을 따라간다는 "따라잡기(catching up)"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잡기 발전'은 필연적으로 '외인적 발전', 곧 '전파주의적 개발'을 전제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학문의 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사회과학에서 발전의 문제가 초점으로 등장하였다. 2차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신흥국의 엘리트들은 서구세계에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유학 기간 동안 서구 학자들이 제3세계를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그대로 이식 받고 본국에 돌아와서는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지도층이 되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그들 나라 간에 존재하는 생활수준의 공간적 지역적 격차를 발전 수준의 시간적 공간적 격차로 보고, "발전된 근대성을 저개발의 전통적 지역에 이식"하는 근대화 이론의 신봉자가 된 것이다. 당연하게도 그들에게 제3세계 국가의 지역은 자연과 문화가 밀접하게 결합된 고유한 생활 단위가 아니라 발전을 위하여 서구의 근대화를 확산시켜야 할 문제 지역이었고, 지역적 개성은 확산을 저해하는 장애로 제거되어야 했다.

한국에서 경제발전계획은 1960년대부터 도입되었으나, 70년대부터 불균등 지역발전이 가져오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지역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공간정책의 필요성이 아래와 같이 대두되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이에 따른 인구 및 공업의 과도 집중이 용수, 교통, 주택, 학교 및 시장 등 공공시설의 부족에서 오는 이른바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또 지역적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한다고 하면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 따라 날이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 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

여 10년 앞을 전망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sup>8)</sup>.

공간정책에 복무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성장한 지역개발론은 이처럼 '경제발전의 공간적 측면'에 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역개발론은 경제발전의 '지역적 격차'에 대한 국가개입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책 계획에서 비롯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지역발전 계획에 이론과 분석모델을 제공하는 기능적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은 서구가 경험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과 풍요, 대중적 민주주의, 도시적 근대사회에 대한 낙관적이고 '확산주의적' 견해를 공유했는데, 이를 통칭하여 '발전주의 지역개발론'이라 부를 수 있다<sup>9)</sup>.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발전주의 지역개발론'은 지역개발 실무에서는 여전히 강고하게 남아 있고, 지역발전 이론에서도 저변을 지배하는 사고 틀로서는 영향력이 크다.

발전주의 지역개발론의 지역발전 개념은 발전의 격차를 가진 두 지역의 발전 상태와 과정에 대한 것이다. 발전 상태는 경제 성장·민주주의·근대사회와 같은 어떤 가치 기준을 달성한 B상태가 A상태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발전 과정은 A상태에서 B상태로의 상향적 사회 변동 과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것의 공간적 응용인 지역개발론의 이론과 모델은 발전 패턴의 비교(공간 분화), 지역 발전의 단계(공간 통합 과정), 그리고 발전의 확산(공간 확산 모델)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진다<sup>10)</sup>. 발전주의는 경제학의 성장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사회학의 '근대화 이론'에 근거를 둔다. 근대화 이론은 발전 지역(주민)과 저발전 지역(주민)이 상반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발전을 달성한다는 것은 저발전 지역이 그 후진성을 제거하고 대신 발전 지역이 가진 선진적 특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발전사회인 전통적 촌락사회로부터, 발전된 다른 유형의 사회인 도시적 근대사회로의 전환을 발전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을 비교 분석한다. 후진 국가의 경제발전에 대한 주된 장애는 후진국에 내재하는 것으로 근대적 세계에 적용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비생산적 인구 특성에 있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은 한가지이다. 그들은 이미 산업화를 이룬 선진

국가가 밝아 온 '근대화' 방식을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답습해야 한다. 근대화 이론은 원시적이며 비차별적, 그리고 비합리적 사회 구성체(Gemeinschaft)에서 근대적이며 차별화되고, 판료적으로 합리적인 사회 구성체(Gesellschaft)로 '선형적으로 이행(linear transition)'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근대화 이론은 본질적으로 서구적 정치적 문화적 가치 뿐 아니라 서구의 자본과 기술이 비서구 사회에 확산된다면, 근대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가정이 의해 성립된 것이다<sup>11)</sup>.

'근대화 이론'은 개발 경제학에 지역 경제의 발전 단계를 그려낼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경제의 발전은 발전 지역의 근대 부문(도시에 기반한 산업 부문 혹은 선진국 경제)과 저발전 지역의 전통 부문(촌락의 농업부문 혹은 후진국 경제)의 '이중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대 부문이 전통 부문을 통합하는 과정은 저생산성의 농촌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는 도시화 과정과 연관된다. Rostow의 성장 단계론은 제3세계의 경제발전이란 저생산의 농업 기반에서 고생산성의 공업 기반으로의 전환을 '도약단계'로 정형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후진 지역의 발전 장애는 발전에 필요한 '보편적 자원의 결핍'이다. 즉 후진 지역은 전근대적 촌락 부문의 특성인 낮은 노동생산성과 자본 부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당연히 농촌노동력의 도시이주에 의한 잉여노동력의 재배치와 외부 자본을 도입함으로써만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 사회학의 근대화 이론, 개발 경제학의 발전 단계론에 상응하여 발전의 공간적 모델을 제시하려는 연구 분야를 발전지리학 혹은 근대화의 지리학이라 부를 수 있다.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지리학은 중심으로부터 확산되는 '공간 프로세스'인 발전의 공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리학을 공간적 사회 과학으로서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이들 지리학자들은 다른 사회과학 분과 학문에서 개발한 발전주의 모델을 단순히 공간 차원에서 적용할 뿐 아니라, 몇 가지 자신의 모델 곧 발전의 공간 모델을 만들기도 했다. 예를 들어, Taaffe, Morrill & Gould (1963)의 운송모델은 교통망의 발전단계론이며, Berry, B.(1961)는 종주도시 분포가 '순위규모법칙(rank size rule)'에 의해서 대표되는 통합된 도시체계의 발전의 첫 단계 일뿐이라는 도시체계의 발전

단계를 제안하였다.

발전주의 지역개발론은 대상 지역의 발전단계를 분류하고 발전을 경험적으로 측정하며 그리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지배적 가정을 모든 지역발전에 적용하는 단순화·추상화 방법으로 활용한다. 이들 가정은 1) 발전목표가 선진국의 가치기준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총량적·평균적인 것으로 정의되고 측정되기 때문에, 발전에 관한 비교 문화적 차별성이나 내부 갈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2) 독립된 발전단위의 자율적 발전이라는 가정은 발전된 지역과 저발전 지역은 본질적으로 분리된 공간조직 체계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 지역(혹은 국가)의 저발전은 그 지역내부의 저발전 혹은 발전조건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전체의 한 부분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저개발국의 산업체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노동분업구조를 구성하며, 일국내 침체지역 역시 내국적 분업구조를 형성하는 부문이다. 3) 발전주의에서 사회변화는 모든 사회가 동일과정의 발전도정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저발전의 출발선에 있는 저발전의 '전통적' 지역은 '근대적' 사회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향하여 발전지역이 겪은 동일한 경험을 반복해야 한다. 곧 발전과정은 후진국이 서구를 닮아 가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만약 너희가 우리처럼 되면, 너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고이다.

결국 모든 발전주의 지역개발론의 핵심적 주장은 발전지역에서 저발전지역으로 발전이 '확산'된다는 '확산주의'에 있다. 지역발전은 불균형적인 상태에서 발전의 초기적 이점을 우세하게 부여받은 발전된 지역이 어떤 단계에 이르면 저발전 지역으로 성장발전의 전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역간 불균형적 경향으로 전개되지만 이 전파는 지역간의 발전수준의 수렴, 이중경제의 제거, 그리고 발전지역과 저발전 지역간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을 유도할 것이라고 가정된다. 확산개념에 입각하여 시행된 수많은 지역발전계획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지역간 발전수준은 수렴되기 보다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오히려 보편적이다. 정책적으로 저발전 지역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설치하더라도 선도적 산업부문을 배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발전된 지역에서 추방 위기에 직면한 공해산업의 수

출이 일반적이다.

### 3. 발전주의 시대의 지역

대체로 세계대공황을 경험한 1930년대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 호황(1945~1973),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서부터의 경기후퇴기까지를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한 주기로 볼 수 있다. Mandel이 '후기자본주의'라고 부르고, Lipietz는 포드주의라 하였다<sup>12)</sup>. Harvey가 포드-케인즈주의라고 칭한<sup>13)</sup>, 이 반세기 동안은 발전 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와 학제적 방식으로 활발하기 행해졌던 시기이다. 이 시기 전반에는 선진자본주의 국내 지역의 불균등 발전에 대한 관심에서 후반에는 제3세계 국가로의 발전의 확산이 발전 연구의 주요한 탐구 주제였다<sup>14)</sup>. 이 시기에 지역개발(regional development)이나 지역연구(area studies)에 지리학자들도 참여했다. 지역개발론에서 지역은 잡다한 공간적 정보를 분류하는 기법이며, 여기서 지리학자들의 기여는 예상만큼 크지 못하였고 그 영향은 매우 미약했다. 그 까닭은 이용가능한 공간적 정보는 급속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지역지리학'이 방법론적·이론적으로 진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본다<sup>15)</sup>. 이에 지리학 내부에서 지역지리학의 방법론 부재를 비판하고 계량 기법을 활용하는 '공간분석 지리학'이 태동되었다. 지역지리학의 개성기술적 접근에 대한 '예외주의'라는 비판, 그리고 법칙추구적 규범 과학으로서 지리학을 정립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발전의 공간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성행하던 시기에 지리학이 법칙추구적 규범 과학으로 전환을 서둘고 계량적 기법 도입 등 내부적 방법론 혁명을 추진하였음에도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가 그동안 종합적 지역을 연구의 중심으로 삼아 온 지리학의 전통 내부에 있다는 것이 지배적 인식이었다. 그러나 앞서의 하비의 자본주의 변화 발전과 재현체제의 변화의 관련성에 주목하면, 지역지리학의 쇠퇴 역시 변화하는 세계자본주의의 재현체제의 하나인 학문의 추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확산주의적 지역개발론이 추구하는 '발전'은 전통적 지역지리학의 '지역'을 해체하는 경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진보로서 발전은 공간의 정

복, 모든 공간적 장벽의 철폐, 궁극적으로 '시간을 통한 공간의 절멸(annihilation of space through time)'을 추구한다<sup>16)</sup>. 여기서 공간과 공간의 단위인 지역은 인간행위의 근본적 측면이 아닌 부수적 측면이 되고 해소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은 기껏해야 공간을 분류하는 수단이 되어서 지극히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표준형으로 남게 된다.

'지역'이란 용어는 다른 분과 학문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애용되는 용어이지만, 지리학자들이 지역을 지리학 고유의 기본적 개념으로 여겨 왔다. 지리학 내부에서는 지리학적 용어로서 '지역(region)' 개념이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리학자 나름대로의 연구에 의해서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지역을 인식·정의·구분·기술하는데 일정한 공식은 없었다. 그러나 지역은 공간 구분의 형식적 단위로 보기보다는 지리학 특히 지역지리학에서 지역은 사회경제적, 문화역사적, 자연생태적으로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구분되는 공간적 결합체로 생각하는 전통이 강력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비달리안 전통(La Tradition Vidallienne)'이 자주 인용된다.

"지리학이 다른 학문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다시 공유의 유산으로 타 학문에 전수할 수 있는 것은 원래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분해하는 능력이 아니다. 지리학의 고유한 능력은 지구 전체 지표면이던지, 아니면 국지화된 지역적 무대이든지 간에 현상들간에 존재하는 상용과 상관울 이해하는 능력이다."<sup>17)</sup>

지리학의 고유한 능력으로 지표 현상간에 존재하는 상용과 상관울 이해하는 능력, 이는 곧 지리학이 나누고 분석하기보다는 통합하고 종합하는 접근 방식을 전통으로 하고 있으며 종합의 방법과 단위가 곧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정체성(identity)과 진정성(authenticity)을 본질로 하는 구체적인 장소적 공간이다. 따라서 지역은 공간에 대한 서사적 기술과 경관에 대한 심미로 표현되는 상상력 넘치는 지리학의 보고였다. 이러한 지역지리학이 '공간의 절멸'을 추구하는 발전주의 시대에 쇠퇴할 것은 분명하고, 그 원인도 방법론의 부재와 같은 내재적 요인보다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과학적 이론

의 성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곧 확산주의 발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공간구조의 동질화와 통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리학적 지역의 소멸을 전제로 한다. 지역개발론에서 '지역'은 사회경제적 발전의 본질적 단위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공간적 전개 과정을 측정하는 공간 분류 방식에 불과한 부수적 존재였던 것이다. 발전주의 지역개발의 시대에 지역은 지리적 정보를 조직하는 가장 논리적이고 만족스러운 방식의 하나일 뿐이었다. Haggett, Cliff and Frey가 확산에 찬 어조로 설명한 지역화(regionalization)은 '지역' 개념에 담긴 신비한 설명을 모두 떨어내고, 모든 과학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분류(classification)의 특수한 형태이다. 따라서 지역지리학은 한 지역의 현상의 공간적 분포를 체계적으로 편집하는 일로 간주되었다. 여기서 추상화 계량화에 적합한 3가지 범주의 지역, 곧 '동질지역'·'기능지역'·'계획지역'이 도출되는 것이다<sup>18)</sup>.

발전주의 시대 지역개발론의 핵심으로서 확산주의에 대한 지리학적 이해는 이 시대 특수한 자본주의적 관계가 공간적으로 확산되고 재편되는 사회-공간적 재구조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발전주의 지역개발론을 말할 때, 우리는 사실 포드-케인즈주의 자본주의 체제라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축적의 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주의의 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이 시기에서는 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주도하고 조절하는 주체로서 국가(중앙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다.

#### 4. 지역발전에 대한 국가의 개입

지역개발론은 발전을 의도적으로 조직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정책과 관련이 밀접하다. 또 지역정책은 불균등발전과 같은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공간정책과 폭넓게 중첩된다. 물론 지역개발론에 대하여 '경제개발의 공간화'에 빠져 비경제적 비공간적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된다<sup>19)</sup>. 지역불균형 발전 문제의 해결을 추구한다는 명시적 이데올로기를 제거하면, 지역개발론의 본령은 자본주의 국가의 공간정책에 대한 기여이다.

지역개발의 경제학은 20세기 초 신고전파 균형

이론을 공간 차원에 적용한 Weber와 Loesch 등의 지역적 균형발전론에서 시작한다. 균형발전론은 저발전 지역이 발전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것은 극복되어야 할 불균형 상태로 본다. 그러나 균질적 공간에서는 일시적인 지역적 불균형은 자유경쟁, 완전정보, 자본과 노동이라는 양대 생산 요소의 완전한 공간적 이동성에 의하여 균형 상태를 회복함으로써 해소된다는 합리주의적 이념형이다<sup>20)</sup>. 그러나 실체는 경제적 복지가 지역적 공간에 균등하게 전파되지 않으며 그 결과 지역적 발전의 결과는 공간적으로 균형화하는 경향보다는 불균형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는 불균형 발전이론이 2차대전 이후 특히 제3세계 경제발전 연구에서 대두되었다. Myrdal과 Perroux의 불균형발전론과 성장거점론은 발전의 공간적 분극화 경향이 나타내는 불균형의 현실에 주목하면서도, 그것은 생산요소의 이동성 장애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장애를 치유하는 합리적 개혁수단 곧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불균형 발전론의 기여는 지역적 균형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신고전파 경제 이론을 거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 지역과 저발전 지역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과 구체적 정책 수단을 제공하는데 있었다.

신고전파 경제학에 기반한 전통적 지역발전 이론은 발전된 지역에서부터 저발전 지역으로 생산요소가 이동하거나 가치·제도가 전파됨으로써,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지역적 조건을 상실하게 되는 지역간 균형상태를 이루게 되는 것을 발전과정으로 이해한다. 불균형발전론으로 알려진 Perroux의 성장극과 Hirschman 류의 성장거점론도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 단계는 불평등을 증대시킨다는 특성이 있지만, 보다 발전한 단계에서는 감소된다는 균형을 향한 확산을 발전과정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발전은 자본의 확대재생산이다. 이는 평균보다 높은 초과이윤(특별이윤)을 획득함으로써 가능하고, 초과 이윤은 부문간·지역간 차별적 생산조건을 지속적으로 재창출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정상적 자본주의 경쟁은 부문간·지역간 이윤을 균등화 경향을 보인다<sup>21)</sup>. 즉 경쟁을 통한 자본주의의 팽창은 부문과 지역에 걸쳐 사회적 생산의 일반적 조건을 평준화함으로

써 이윤율을 균등화하고 동질적 사회공간을 만드는 이윤율 균등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윤율 균등화와 생산조건의 공간적 동질화 경향은 자본주의 팽창을 최소화한다. 왜냐하면 모든 부문과 지역에서 동일한 이윤율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적 불균등발전론자들은 자본의 확대 재생산은 초과이윤을 얻어야 하며, 이는 부문간 혹은 지역간 생산조건의 차별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sup>22)</sup>. 예를 들어 개별 기업이 기술적 혁신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기업에 대한 자신의 경쟁력을 차별화하고 따라서 이윤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3)</sup>. 보다 진보된 생산력의 집중은 노동력, 하부구조와 지대, 그리고 조세 등 생산조건의 지역적 차이를 활용하기 위한 생산단위 입지의 지리적 분산 및 새로운 노동의 공간분화와 공존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산업입지 경향은 어떤 의미에서도 지역적 불평등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불평등의 형태 내지 패턴이 변화하고 있을 뿐이다<sup>24)</sup>.

전통적 입지이론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공간적 균형화의 과정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자본축적의 위기로 향하는 과정의 하나로 보여진다<sup>25)</sup>. 즉 자본주의 팽창이 가져오는 자본들간의 경쟁과정은 생산조건의 동질화에 따른 이윤율 저하 경향을 보임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은 주기적 불황과 노동과의 계급갈등이라는 위기에 직면한다. 따라서 위기는 자본의 축적 과정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모순의 표출이다.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자본주의가 위기경향을 지닐 뿐 아니라, 위기의존적이라는 관점에 공통적으로 합의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의 표현이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확대과정에서 겪는 일시적 단절과 이 단절된 확대과정이 복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체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sup>26)</sup>. 자본주의 재구조화는 자본이 위기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 생산·교환·분배 및 소비과정에서의 합리화를 강요받는 것을 말한다. 그런 뜻에서 위기는 자본주의가 경제적, 사회적 혁신과 새로운 축적을 위해 자신을 질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하에서의 '비이성적 합리자(irrational rationalizers)'이다<sup>27)</sup>. 따라서 자본축적의 위기를 분석하는 요점은 자본주의 붕

괴의 필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서 시도되는 적용책과 제도적 재조직을 이해하는데 있다<sup>28)</sup>.

자본주의국가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지속시키고 팽창시키는 것을 보장해주는 기구이다. 자본주의 재구조화는 국가에 의해서 새로운 유형의 지역개발정책의 이름으로 시행된다.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경제적·정치적 필요에 따른 국가행동과 새로운 사회공간적 과정이 구성되는 공간적 산물로서 공간구조가 발생한다<sup>29)</sup>. 축적의 위기와 갈등은 국가의 개입에 의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중재된다. 중앙, 지방, 그리고 도시과정에 개입을 통하여 국가는 자본주의적 지역 구조를 만들어 간다.

Lipietz는 국가개입의 공간적 개입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 '공간에서 가치법칙의 부재를 보완(to make up for the lack of a law of value in space)'하는 국가의 공간적 투자정책이다. 이것은 평균이윤율 이상을 추구하는 사적 자본의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법칙에 의한 투자가 행해지지 못하는 도로와 공항 및 항만시설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가의 비이윤적 공공투자를 의미한다. 둘째, 자본축적에 부적절한 상태로 소유·이용되는 '재래의 공간'에 자본주의적 논리를 부과하여 축적에 용이한 '계획된 공간'으로 대체하는 토지정책이다<sup>30)</sup>. 즉 기존의 법적 토지이용권으로 보호해왔던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단순히 취소하는 토지수용에서부터 토지이용과 거래를 제한하는 정비지역·용도구역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정책이 수행된다.

국가의 경제개입은 토지·조세·강제력 등 자원을 재분배하는 배분적 활동과 시장기구가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를 직접 생산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sup>31)</sup>. 또 공간구조 변화와 관련된 정책은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비공간적 정책으로 자본의 집중과 독점의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특히 세계시장에서 경쟁의 격화로 인한 이윤율 저하경향에 대처하는 직접적 자본축적 지원 정책이 있다. 국가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는 '성장산업들'을 확장시키며 동시에 후진적 부문들(광업, 농업, 중소기업)의 숫적 증가를 보조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갈등을 완화하고 국가개

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다<sup>32)</sup>. 이러한 지원 정책의 공간적 결과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지역적 노동의 공간 분화로 나타난다<sup>33)</sup>. 둘째는 직접적 공간적 효과를 가지는 정책이다. 국가는 하부구조 투자정책을 통하여 '생산의 물적조건 일반'을 창출하는 책임을 진다. 자본주의 재생산을 책임지는 국가는 범세계적 경쟁 중대에 따른 이윤을 저하에 대처하는 '반대 경향'으로 생산의 사회적 기반 조건을 재조직하는 정책을 수행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곧 교육과 정보 서비스 중대, 연구활동 지원·보건 운송망과 도시 건설 및 에너지 보급 등 이른바 사회간접자본 조성이 하부구조적 국가 활동으로 정의된다<sup>34)</sup>. 하부구조에 대한 공공투자는 막대한 투자비용 때문에 개별 자본으로는 불가능한 도로와 항만 그리고 통신 등 유통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자본회전을 가속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게 할 뿐 아니라 잉여자본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sup>35)</sup>. 셋째, 국가는 지역계획을 통하여 '재래의 법적 공간'을 자본축적에 적합하게 '계획된 공간'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조직한다. 자본주의 발전이 전국적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됨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지역간 분업구조를 조직하기 위하여, 국가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도시토지 정책과 취락의 계층적 조직화를 위한 정주체계 정책 등 도시·지역계획을 시행한다. 정주체계정책은 노동력의 공간재배치 정책의 일환으로서 자본축적에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는 공간 분업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동력을 지리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일차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지리적 집중은 노동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게 된다. 무차별적 집중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정책 대안으로 공간적 전문화, 그리고 교외로 분산화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의 지리적 집중이 있다. 이 새로운 집중정책은 정주체계를 계층적으로 조직하는 정책이다<sup>36)</sup>.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포드주의적 축적체제하에서 사회보장적(복지부문) 하부구조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유례없이 증대함으로써, 재정적자가 심각해지고 세수 증대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이른바 유연적 축적체제에서, 국가는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개입(국방과

법질서 유지를 위한 개입은 제외)을 축소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 생산의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명목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감축한다<sup>37)</sup>. 반면 지방정부는 지역과 도시의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기업가적 역할을 자임하기에 이를 기업가주의라고 부른다<sup>38)</sup>. 지방정부의 기업가주의는 포드-케인즈주의에서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변환과정에서 주요한 조절기제가 된다. 유연적 축적체제 하에서 조절기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영토적 단위는 도시나 지방 같은 지역적 수준이 된다<sup>39)</sup>. 지방 정부의 지역개발에 대한 개입 방식은 규모가 방대하고 회수기간이 장기간인 대규모의 물적 하부구조보다는, 지역주민의 정체감을 고양하고 관광수입을 늘이는 장소마케팅과 같은 문화적 전략을 통하여 다목적 효과를 추구하는 경향이다. 장소마케팅이나 도시의 활성화 전략은 유연적 축적체제의 소비 가속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이른바 지역의 재흥과도 관련이 있다.

## 5.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주제들과 문화생태적 지역에 대한 역사적 접근

새로운 지역지리학이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전통적 지역지리학과 달리 새로운 지역개념과 방법론으로 정비된 것이며, 특정한 철학적 배경보다는 다양한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sup>40)</sup>. 신지역지리학에 대한 활발한 방법론적 논의는 1960년대 이래 실증주의 방법론,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의 수입 과정을 연상시킨다. 방법론 논의만 충족하고 실체적 연구의 축적이 없이, 또 다른 방법론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렵다. 지역이 발전의 의미 있는 단위로 재흥된다는 징후는 신지역지리학의 방법론 논의에서 뚜렷하지만,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구체적 연구 성과는 많지 못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지역지리학의 방법론과 관련되는 연구 흐름은 크게 경제적·정치적·사회적·생태적 접근 그리고 문화역사적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접근은 1970년대 성장거점전략 패러다임에 반발하



여 기본수요 접근과 같은 신인민주의(neo-popularism)의 상향적 발전 이념을 공유하는 내발전 발전론이다. 내발전 발전론의 한 유형은 지역경제학적 접근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이나 잠재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산업(地緣産業)이 성장을 꾀하는 일본 지역경제학 내지 경제지리학의 조류이다<sup>41)</sup>, 정치적 접근은 최근 국민국가 수준의 포디즘의 대량생산·위계적 통합이 새로운 정보기술패러다임에 기초한 지역적 수준의 유연적 산업조직원리-준통합 내지 네트워크-로 대체되는 사회체제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한다. 이들은 지역적 수준의 '결사체 통치체제'를 정부중심의 조정과 통제에의 대안으로서 주장한다. 결사체 통치체제란 지역 규모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느슨한 제휴'에 기초한 행위조절양식인 네트워크 조절양식, 그리고 새로운 통치체제(new governance)로서 민간과 준공공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결사체)의 상호작용적 통치양식을 의미한다<sup>42)</sup>. 사회적 접근은 Giddens의 구조화이론에서 구조·제도·행위의 3개의 분석 수단을 얻고 다시 Massey로부터 노동의 공간분화에 의한 장소의 재구조화 개념을 도입하여 국지(localities) 연구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사회적 접근은 시간과 공간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사회체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역을 이해하자고 주장한다<sup>43)</sup>. 또 대안적 지역발전 방안으로 생태자지구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시스템과 인간시스템으로 구성된 거대한 생태체계로서 생태도시를 제안하기도 한다<sup>44)</sup>. 역사적·생태적으로 고유한 지역성을 다시 살리자는 '생물 지역론'도 신지역지리학 연구에 참고할 수 있다<sup>45)</sup>.

신지역지리학 연구에서 무성한 방법론 논의보다는 현 단계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공간적 재현양식으로서 지역과 지역발전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성과를 생산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Harvey는 1970년대 이후 새로 구성된 자본주의 축적체제를 "포디즘에서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이행"으로 보았다<sup>46)</sup>. 새로운 축적체제는 생산과 마케팅에서 유연한 노동과정과 시장, 높아진 지리적 이동성과 소비 관행의 급격한 전환을 특징으로 한다. 생산의 유연성과 지리적 이동성 증대, 그리고 소비속도의 가속화는 '시-공간 압축'이라는 공간 경험의 변화를 매개로

하고 있다. 시-공간 압축이 추구하는 바는 공간적 장벽의 소멸이다. 그러나 공간적 장벽의 소멸은 역설적으로 지리적 환경의 고유성을 증시하는 반대 경향을 촉발한다. 공간에서 장소의 차이에 대한 자본의 민감도는 높아지며 자본과 소비를 끌어들이 수 있도록 장소를 질적으로 차별화 하고자 하는 동기 또한 커진다. 공간의 수축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공간이 통합되고 추상화될수록, 그리고 장소의 정체성이 상실될수록, 장소와 지역적 정체성에 대한 욕구는 강화된다<sup>47)</sup>.

자본회전의 가속화 수단은 생산영역보다 소비영역에서는 발전이 주목된다. 생활방식과 여가활동, 문화생산 부분에서 소비속도의 가속화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재화의 소비로부터 오락, 스펙터클 관람, 해프닝과 축제 참여, 여가 등 시간과 장소의 소비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결국 유연적 축적체제가 동반하는 시-공간 압축 혹은 장소적 이동성 증대 경향에 대한 대응이 장소의 파괴와 함께 반대 경향으로 장소적 정체성에 대한 욕구 강화로 나타난다. 이는 다시 지역개발에서 소비양식 변화와 관련되는 장소마케팅 등으로 대응되고 있다. 장소마케팅은 자본이 Harvey의 '공간적 해결(spatial fix)' 모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적 해결(cultural fix)'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장소를 마케팅하려는 전략들이 새로운 도시 지배양식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민관합동(민관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주요한 도구로 삼는 도시 기업가주의가 등장한다. 도시기업가주의와 같은 새로운 도시정치분야의 출현은 새로운 자본축적체제로의 전환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데, 기업가주의 정부 아래서 도시와 지역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된다. 도시의 상품화는 도시가 판매하는 재화가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 도시의 축제와 같은 장소적인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시들은 지역개발 전략으로 문화전략을 선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통합 모델이다<sup>48)</sup>. 이는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전략이다. 통합 모델에서 문화정책은, 공공의 사회적 삶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정체성과 도시에 대한 소속감을 공유시키고 민주적인 공공영역을 창출하고 도시생활의 질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을 높이고

〈표〉 지역개발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지역 및 국가개입의 성격

구분 축적 체제	발전 (자본 축적)	지역 (공간적 재현 양식)	공간 정책 (국가·지방정부 개입)
포드-케인즈주의	서구적 표준 확산 경직성	통합, 절멸의 과정 추상화 계량화를 위한 분류 수단 경제적 지역	하향적, 도시적 분업체계 공간적 해결(물리적 하부구조) 정부 중심의 조정
유연적 축적	환경과 정체성의 재발견 유연성	국지화, 개성화 과정 구체화 서사적 내용, 미학적 경관 문화생태적 지역	상-하향적, 도시 매력 문화적 해결(문화 전략) 네트워크 조절양식

자 하는 전략이다. 소비 성향의 변화에 맞추어 지방정부의 문화전략은 지역 개발 방식을 종래의 하향식 일변도에서 아이디어와 참여를 중시하는 상-하향식 추진으로; 그리고 내용을 하드웨어 투자에서 이벤트와 상징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추진 주체를 정부 주도에서 공공-민간/민간주도로 이행을 선호한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사회경제적 조건변화가 지역 개념 구성과 지역지리학의 연구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말을 바꾸어 보면, 외연적 팽창으로 특징지어진 경제성장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순환적 환경을 회복하고 개성적 문화의 재발견하는 세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추세가 '지리학적 지역'이 재흥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다<sup>49)</sup>. 재흥될 지역은 경제적 지표로 계량화 추상화되는 보편적인 것(universalism)이 아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혁신과 자원을 투입하여 전파하기 위해 하향식으로 설정한 대상적 지역이 아니다. 바람직하게 표현하면 '내부에서' 주체가 삶의 역사적·자연적 근거로 뿌리박아 상향적 발전의 토대로 인식되는 국지적으로 정체화된 것(particularism)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신지역지리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생태학적 세 측면 가운데 문화생태학적 지역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싶다. 총체적이며 개성적이고 문화생태학적 경관으로 인식되는 비달의 지역(pays)이 현대 단계 자본주의의 공간적 재현체계의 특징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아래 <표> 지역개발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지역 및 국가개입의 성격, 참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전통 읍치나 촌락과 같은

역사적 공간에서 문화와 생태가 만나는 지역을 재발견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다수는 지금도 행정 중심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 차원의 문화적 지역개발 전략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전통적 읍치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지역은 서사적 내용이 있고 미학적 경관이 있으며, 생태학적 지속성도 존재한다.

註

- 1) 김인, 1978, 현대지리학의 사고와 이해 방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지리학논총 5, 4~14; 1983, 지리학에서의 패러다임 이해와 쟁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지리학논총, 10, 15~25.
- 2) 류유익, 1986,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위한 소고, 현대사회, 6-4, 246~263.
- 3) 최근의 '신지역지리학' 주장은 서태열(1989, 지역지리학 쟁점의 재조명: 1960~1989, 지리교육논집 22, 80~91.); 손명철(198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새로운 지역지리 논의를 위하여, 명보문화사); 이희연·최재현(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7~574.) 등을 들 수 있다.
- 4) Harvey, D., 1989a, *The Condition of Post 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Basil Blackwell. 204.
- 5) "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인권이 희생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실현되는 것들은 발전 연구 분야에 일종의 위기를 가져왔다. 성장과 발전은 점차 분리되었는데, 상장은 경제적 과정에 관한 것을 말하고 발전은 인구 전체의 복지 개선과 관련된 일련의 규범적 변화를 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 Forbes, D. K., 1984, *The Geography of Underdevelopment - A critical Survey*, Croom Helm, London & Sydney. 42~43.

- 6) 박서호, 지역개발의 이론과 방법론, 박서호 외, 1988, 지역개발론, 녹원출판사, 19~20.
- 7) Johnston, R. J.,(eds), 2000,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4th ed., Basil Blackwell, 167~168. "development"
- 8) 대한민국정부, 1971,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붙이는 말,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xi.
- 9) Taylor, P. 1989, The Error of Developmentalism in *Human Geography*, Gregory, D., & Walford, R. (eds), *Horizons in Human Geography*, Macmillan. 303~319.
- 10) Browett, J. G., 1980, Development, the diffusionist paradigm and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1. 57~70.
- 11) Forbes, D. K., 1984, 앞의 책, 56.
- 12) 20세기 중반 시기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특성을 학자에 따라서 대량생산, 독점자본주의, 조직자본주의, 제4 콘트라딕티프, 포드주의, 후기자본주의 등으로 부른다 - Webber, M. J., 1991, *The Contemporary Transi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9-2, 165~182.
- 13) Harvey, D., 1989a, 앞의 책, 124.
- 14) Forbes, D. K., 1984, 앞의 책, 3장: Geography, Area Studies and Development Studies.
- 15) Forbes, D. K., 1984, 앞의 책, 48~50.
- 16) Harvey, D., 1989a, 앞의 책, 205.
- 17) James, P. E., and Martin, C. J., 1972, *All Possible Worlds*, 2nd ed. John Wiley & Sons, 189~191.
- 18) Haggett, P., Cliff, A. and Frey, A., 1977, *Locational Analysis in Human Geography*, 2nd. ed. Edward Arnold. 450~453.
- 19) 지역개발론(지역개발학)은 공간적인 것에 집착·경제주의·실증주의적 인식론의 한계를 가지고, '관변 학문'의 성격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 조명래, 1991, "제3세대의 지역개발학",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 25~55. 또 정치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요인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기능주의적 합리주의로 비판된다(Cooke, P., 1983, *Theories of Planning and Spatial Development*, Hutchinson, 106~119).
- 20) "배버의 분석은 우선적으로 인간 행동의 일부인 합리주의적 행동을 설명하려는 기법으로 의도된 것이지, 현실을 기술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된다. - Cooke, 1983, 앞의 책, 113.
- 21) "자본은 이윤율이 보다 낮은 부문에서 빠져 나와 보다 높은 부문으로 옮겨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의 유출과 유입에 의해서, ... 각 부문별로 자본이 분배됨으로써, 각 생산 영역에서 평균이윤이 균일하게 된다. 끊임없는 불균등의 끊임없는 균등화는 1) 자본이 보다 더 이동적일수록, 2) 노동력이 더 신속하게 한 영역, 한 지점으로 신속하게 이동될 수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급속하게 이루어진다."(Marx, K., 강신준 옮김, 1988, 자본 III-1, 이론과 실천, 239~240.)
- 22) Harvey, D.(The geopolitics of capitalism in Gregory, D. & Urry, J.(eds), 1985,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Macmillan, 128-163.)는 자본축적과 불균등 지역발전의 내재적 연관을 '공간의 생산'(비이동적 하부구조의 조성을 통한 생산조건 차별화)과 '공간에 대한 지배'(이미 달성된 차별적 생산조건과 고정자본의 투자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지역적 계급연합 등) 개념을 통하여 제시한다.
- 23) "우리는 자본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는 문제가 - 그것이 기술적이든 지리적이든 궁극적으로 이윤율 수준에서의 격차에 의해 결정지워짐을 명심하여야 하는데..."(Mandel, E., 1975, *Late Capitalism*; 이범구 옮김, 1985, 후기자본주의, 한마당, 76.)
- 24) Dunford, M. and Perrons, D., 1984, *The Arena of Capital*, Macmillan, 358.
- 25) Harvey, D.,1982, *The Limits to Capital*, Basil Blackwell, 390.
- 26) O'Conner, J., 1987, *The Meaning of Crisis ; a Theoretical Introduction*, Basil Blackwell; 김성국 역, 1990, 현대자본주의 위기론, 나남, 63~64.
- 27) Harvey, D., 1981, The urban process under capitalism : a framework for analysis, in Dear, M. and Scott, A.(eds), 1981, *Urbanization and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Methuen. ; 최병두·한지연 편역, 1989, 자본주의 하의 도시과정:분석틀, 자본주의 도시화와 도시계획, 한울, 71.
- 28) Wright, E. O., 1978, *Class, Crises and the State*, London, New Left Books; 김왕배·박희 옮김, 1985, 국가와 계급구조, 화다, 123.
- 29) Clark, G. L., and Dear M.(1984, *State apparatus-structure and language of legitimacy*, Allen & Unwin, 1~6.)는 자본주의에서 국가 및 공간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국가자신은 자본주의에 위치한 사유재산제의 특정 유형에 자신의 논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국가권위와 권력의 기본구조 속에 구체화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계속적인 생산·재생산을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분권화된 생산과정과 시장거래, 그리고 분배에 침투한 축적과 순환의 문제점은 반드시 통제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 둘째, 현존의 권력 지배구조뿐 아니라 생산교환의 정치적 특성에 따라 사회화되는 계속적으로 재생가능한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중 어느 것도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 국가는 제도가 위협받을 때 자신을 보호할 필수적인 정치적 권위를 가져야 한다. 이런 필요에서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관계의 보장자로 나타난다. 예컨대 국가는 가능한 곳에서 체제전반체에 걸쳐 합리적 자원배분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통망과 같은 경제적 하부구조에 대한 직접적 투자에 의해 축적과정을 가지게 된다. 동시에 주택, 부지 조성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재생산을 책임지기 위해 개입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자신의 이익도 증진시킨다. 국가는 자기자신의 목적을 가진 하나의 제도이자 자본주의

-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는 자신의 행동 및 사용자·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요약하면, 국가에 관한 문제들은 두개의 주요 국면으로 구성된다. 즉 첫째는 분산화된 상품생산, 시장교환, 그리고 자본축적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에서부터 나온 경제적 책무(economic imperative)이다. 그리고 둘째는 계급에 기초한 잉여가치의 분할과 본질적으로 착취적인 일련의 생산관계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자신의 역할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에서 도출되는 정치적 책무(political imperative)가 그것이다.”
- 30) Lipietz, A., 1980, The structuration of space, the problem of land, and spatial policy, in Carney, J. and Lewis, J.(eds), *Region in Crisis*, Croom Helm.
  - 31) Offe, C., 1974, Structural problems of the capitalist state’, in Von Beyme(ed.), *German Political Studies*, I.; 한상진 편, 서규환·박영도 역, 1988, 국가이론과 위기분석, 전예원.
  - 32) 유희임 허리쉬, “국가기구와 사회적 재생산: 부르조아 국가이론의 제 요소,” in Holloway & Picciotto (eds), 1978, *State and Capital: a Marxist Debate*, Edward Arnold ; 김정현 역, 1985, 국가와 자본, 청사신서-29, 97~167.
  - 33) Massey는 1960년대 후반이래 격화되는 국제경쟁에 대처하여, 국가 지원에 의한 영국의 자본통합이 지역적 노동의 공간 분화를 재구조화하는데 미친 영향을 전기·전자 산업의 공간구조 변화를 통하여 설명하였다.(Massey, D., The U.K. electrical engineering and electronics industries, in Dear, M. and Scott, A.(eds), 1981, 앞의 책, ; Massey, D., 1984, 앞의 책).
  - 34) 현대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는 도로·항만과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를 넘어서 개별자본에 ‘외적인 일반적 생산조건’으로 폭넓게 정의되어야 한다. 오늘날 자본의 축적과정이 점차 보다 많은 생산조건을 기업 외부로 사회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의 성장정책은 자본의 집중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물적인 생산조건을 제공하고, 노동생산성과 자본의 순환속도를 높이는 노동력 재생산의 기초 및 전제조건을 창조하는 하부구조적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Holloway & Picciotto (eds), 1978, 앞의 번역서, 143-152.)
  - 35) Harvey(1982, 앞의 책)는 국가의 하부구조 투자가 노동과 자본의 잉여를 흡수하고 자본 회전속도를 가속화함으로써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자본주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공간적 조정(spatial fix)을 해 왔다고 주장한다.
  - 36) Damitte, F., The regional framework of monopoly exploitation: new problems and trends, in Carney, J. and Lewis, J.(eds), 1980, 앞의 책, 76~92.
  - 37) Benko, G. and Dunford, M., Structural change and the spatial organization of productive system: an introduction, in Benko, G. and Dunford, M. (eds), 1991, *Industrial Change and Regional Development*, London, Belhaven, 17.
  - 38) Harvey, 1989b, From managerialism to entrepreneurialism: the transformation in urban governance in late capitalism, *Geografiska Annaler*, 71 B (1), 3~17.
  - 39) Mayer, 1992, The shifting local political system in European cities, in Dunford, M., and Kafkalas, G.(eds),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Europe*, Belhaven Press.
  - 40) 이희연·최재현, 1998, 앞의 논문.
  - 41) 宮本憲一을 필두로 한 일본의 ‘내발적 발전론’은 현대의 지역문제를 단순히 소득향상 뿐 아니라, 환경문제·자원문제·자기 실현의 기회·지역문화·주민참가·지방자치 등 이른바 현대적 빈곤문제로 보고, 지역의 자립성, 내포적 순환성, 안전성, 성장잠재력 등을 중시하여 전체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을 재생하지는 입장이다. - 박경, 지역개발전략으로서 내발적 발전론, 한국공간환경학회, 1999, 공간과 사회 1, 240~264; 박경, 2001, 미야모도의 주민자치와 내발적 발전, 국토연구원 역음, 2001,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 42) 한국에서 결사체통치체제 논의는 지역의 발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하는 ‘결사체 민주주의’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 정병순·김두환, 2001, 대안적 지역발전의 기제로서 결사체 통치체제: 내생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 한국공간환경학회, 2001, 공간과 사회 15, 203~261.
  - 43) 박규택·이상율, 1999, 공간·시간·사회/자연의 상호관계성에 의한 지역이해,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5~22.
  - 44) 조명래, 2001, 녹색사회의 탐색, 한울, 252~286.
  - 45) 살아 있는 공간을 지역으로 보고, 지역에 대한 문화적 연구와 생명적인 연구를 결합시키는 작업을 생물 지역으로 정의한다. - 문순홍, 1999, 시간·공간 그리고 생물지역론 II. 생태학의 담론, 숲
  - 46) Harvey, D., 1989a, 앞의 책, 191.
  - 47) Harvey(1989a, 앞의 책, 272.)는 시-공간 압축으로 공간적 추상화가 강화되고 역사적 연속감과의 급격한 단절이 되풀이되는 시기에 미술관, 도서관, 전시관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장소적 유적이 급변하는 세계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예로 든다,
  - 48) 통합 모델(integration model)·문화산업 모델(cultural industries model)·판촉 또는 소비자중심주의 모델(promotion or consumerist model)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Griffiths, R., 1995, “Cultural Strategies and New Modes of Urban Intervention,” *Cities* 12(4), 253-265; 구동희, 1987, “대도시 공간환경의 재구조화와 삶의 질 -장소마케팅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집> 삶의 질: 공간과 환경(II), 사회과학연구 15-2호에서 재인용.
  - 49) ‘재홍’이란, 블라슈의 지역지리학에서 말하는, 문화적 정체성(‘개성’)을 가지고 그것이 지방적 경관(‘차별화’)로 재현되는 ‘지역’으로 해석되어도 좋다.

文獻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특집> 삶의 질: 공간과 환경(II), 사회과학연구 15-2.
- 국토연구원 엮음, 2001,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 김덕현, 1993, 자본주의 발전과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재구조화 접근을 중심으로, 남계형기주교수화갑기념논집, 교학사, 49~70.
- 김덕현, 1993,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재구조화의 공간성,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편, 공간과 사회 3, 15~31.
- 김인, 1978, 현대지리학의 사고와 이해방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지리학논총 5, 4~14.
- 김인, 1983, 지리학에서의 패러다임 이해와 쟁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지리학논총 10, 15~25.
- 김형국, 1983,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박영사.
-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1991, 지역계획론, 형설출판사.
- 대한민국정부, 1971,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 류유익, 1986,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위한 소고", 현대사회 6-4, 246~263.
- 문순홍, 1999, "시간·공간 그리고 생물지역론 II. 생태학의 담론, 숲.
- 박경, 2001, "미야모도의 주민자치와 내발적 발전", 국토연구원 엮음, 2001,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 박경, "지역개발전략으로서 내발적 발전론", 한국공간환경학회, 1999, 공간과 사회 11, 240~264.
- 박규택·이상울, 1999, "공간·시간·사회/자원의 상호관계성에 의한 지역이해",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5~22.
- 박서호 외, 1988, 지역발전론, 녹원출판사.
- 서태열, 1989, "지역지리학 쟁점의 재조명: 1960~1989", 지리교육논집 22, 80~91.
- 손명철 편역,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명보문화사.
- 이회연·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7~574.
- 조명래, 1991, "제3세대의 지역개발학",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 25~55.
- 조명래, 1995, "지역개발학의 패러다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7-2, 51~67.
- 조명래, 1999, 포스트포디즘과 현대사회의 위기, 다락방.
- 조명래, 2001, 녹색사회의 탐색, 한울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1, 공간과 사회 I, 특집 한국자본주의 발달과 지역분균등발전.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2, 한국공간환경의 재인식, 한울
- 한국공간환경학회, 2000, 공간의 정치경제학, 대우학술총서 479.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1985, 지방의 재발전, 민음사.
- 황명찬, 1989, 지역개발론, 법문사.
- Benko, G. and Dunford, M.(eds), 1991, *Industrial Change and Regional Development*, London, Belhaben.
- Browett, J. G., 1980, Development, the diffusionist paradigm and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1..
- Carney, J. and Lewis, J.(eds), 1980, *Region in Crisis - New Perspectives in European Regional Theory*.
- Clark, G.L., and Dear M.(1984, *State Apparatus-Structure and Language of Legitimacy*, Allen & Unwin.
- Cooke, P., 1983, *Theories of Planning and Spatial Development*, Hutchinson.
- Dear, M. and Scott, A.(eds), 1981, *Urbanization and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Methuen. ; 최병두·한지연 편역, 1989, 자본주의 도시화와 도시계획, 한울.
- Dickinson, R. E., 1976, *Regional Concept*. Routledge & Kegan Paul,
- Dunford, M. and Perrons, D., 1984, *The Arena of Capital*, Macmillan
- Dunford, M., and Kafkalas. G.(eds),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Europe*, Belhaben.
- Forbes, D. K., 1984, *The Geography of Underdevelopment - A critical Survey*, Croom Helm, London & Sydney.
- Gore, C., 1984, *Regions in Question-Space*,

- Development Theory and Regional Policy*, Methuen.
- Gregory, D. & Urry, J. (eds), 1985,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Macmillan.
- Gregory, D., & Walford, R. (eds), 1989, *Horizons in Human Geography*, Macmillan.
- Hadjimichalis, C., 1987, *Uneven Development and Regionalism-State -Territory and Class in Southern Europe*, Croom Helm.
- Haggett, P., Cliff, A. and Frey, A., 1977, *Locational Analysis in Human Geography*, 2nd. ed. Edward Arnold.
-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Basil Blackwell.
- Harvey, 1989a, *The Condition of Post 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Blackwell: 구동희 · 박영민 옮김,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 Harvey, 1989b, "From managerialism to entrepreneurialism: the transformation in urban governance in late capitalism," *Geografiska Annaler* 71 B (1), 3~17.
- Hirschman, A. O.,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 이현재 역, 1965, 경제발전의 전략, 문운당.
- Holloway & Picciotto(eds), 1978, *State and Capital: a Marxist Debate*, Edward Arnold ; 김정현 역, 1985, 국가와 자본, 청사신서-29.
- James, P. E., and Martin, C. J., 1972, *All Possible Worlds*, 2nd ed. John Wiley & Sons.
- Johnston, R. J.,(eds), 2000,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4th ed., Basil Blackwell.
- Mandel, E., 1975, *Late Capitalism* : 이범구 옮김, 1985, 후기자본주의, 한마당.
- Marx, K., 강신준 옮김, 1988, 자본 III-1, 이론과 실천.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 of Labour: Social Structure and Geography of Production*. London, Macmillan.
- Offe, C., 1974, Structural problems of the capitalist state, in Von Beyme(ed.), *German Political Studies* 1.; 한상진 편, 서규환 · 박영도 역, 1988, 국가이론과 위기분석, 전예원.
- Peet, R. and Thrift, N.(eds), 1989, *New Models in Geography - the Political-economy Perspective*, London, Unwin and Hyman.
- Smith, N., 1986, 'On the necessity of Uneven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0, 87-104.
- Soja, E., 1989, *Postmodern Geographies*, London: Verso.
- Taafe, E. J., Morill, R. R. and Gould, P. G., 1963, Transport expans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Geographical Review*. 53, 503~29.
- Webber, M. J., 1991, The Contemporary Transi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9-2, 165~182.
- Willianson, J. G., 1966, Regional Inequality and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A Description of the Pattern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3, 3~45.
- Wright, E. O., 1978, *Class, Crises and the State*, London, New Left Books: 김왕배 · 박희 옮김, 1985, 국가와 계급구조, 화다.
- Zelinsky, W., 1971, The hypothesis of the mobility transition, *Geographical Review*., 61, 219~249.

(2002년 4월 20일 접수)